

지진피해 현황 및 지원국회의 개최 계획

파키스탄 경제통계부는 지진 발생 20일이 경과한 10. 28(금)까지 피해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I. 지진피해 현황

1. 인명 피해

- 캐시미르 2백만 및 북서변경주(NWFP) 130만 등 주민 3.3백만여명이 영향을 받음
- 이중 10. 28까지, 사망 55,000명 이상, 부상 78,881명(캐시미르36,053명, NWFP18,857명)

2. 재산 및 인프라 피해

- 캐시미르주
 - 학교 3,238개, 대학 1개, 의료시설 319개, 경찰서 등 공공시설 50만 평방feet, 주택 219,000채, 전력선 600km 및 변전설비 3,000개, 160만 명용 물공급시설, 수십 km 통신라인 등

- NWFP주
 - WB, ADB 등이 피해 평가 진행 중

3. 긴급 구호물자 추가 소요

- 방한용 텐트 35만동, 모포 2백만장, 200개소의 야전병원, 헬기 40대

4. 복구 및 재건 비용

- 40만채의 주거와 보건의료 시설, 학교, 도로 복구에 50억불 정도 소요
- 이중 캐시미르주 피해복구에 40억불이 소요(주거 확보에만 30억불 소요)

II. 지진 피해 지원국 회의 개최 계획

- S. Aziz 총리는 복구지원 확보를 위한 국제 지원국회의를 11. 19(토) 파키스탄에서 개최할 계획이

라고 발표함.

- 동 회의에 UN 사무총장 및 WB, ADB 총재 초청 예정

Ⅲ. UN 지원 요청에 대한 각국 지원 동향

□ 국제 NGO Oxfam은 지난 10. 26 제네바 개최 지원국회의 이후 현재까지 각국의 지원동향을 발표하면서 OECD 국가중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가 지원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OPEC 국가들도 UN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함.

- Oxfam은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한 국별 지원 분담비율 비교를 통해 스웨덴만이 170%로 기준을 충족하고, 벨기에(26%), 프랑스(18.7%), 일본(9.5%), 미국(6.9%), 이태리(5.3%) 등 대부분의 주요 OECD 선진국이 기준의 1/4이하로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파키스탄 언론 인용 보도)

[자료: 주파키스탄 대사관]